

#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조절효과

## Influence of Satisfaction of University and Family Cohesion on Perceived Entrapment: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and Hope

신선화\*, 정구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Sun-Hwa Shin(ffssh@daum.net)\*, Goo-Churl Jeong(gcjeong@syu.ac.kr)\*\*

###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1개 대학교의 대학생 6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회복탄력성과 희망에 따른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유의한 조절효과를 도식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 회복탄력성, 희망 및 지각된 속박감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은 지각된 속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대학만족도가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희망의 조절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지각된 속박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대학만족도 | 가족응집력 | 회복탄력성 | 희망 | 지각된 속박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hope among satisfaction of university, family cohesion, and perceived entrapment. It was conducted to measure research variables from 610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resilience and hope was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presented in graphs of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of university, family cohesion, and perceived entrapment. Second, satisfaction of university and family cohes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perceived entrapment. Third, resilience had moderating effect within the relationship of university satisfaction and perceived entrapment. Forth, hope had moderating effect within the relationship of family cohesion and perceived entrapment.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explored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of resilience and hope that could be taken to reduce perceived entrapment.

■ keyword : | Satisfaction of University | Family Cohesion | Resilience | Hope | Perceived Entrapment |

\*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4년 06월 19일

수정일자 : 2014년 07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7월 31일

교신저자 : 정구철, e-mail : gcjeong@syu.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이어주는 과도기에 놓여 있는 대학생들은 정체성의 확립과 취업 등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37.5%)과 학업(33.5%)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준비도 저학년부터 시작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8.1%나 되었고, 3학년부턴 시작한다는 응답도 41.0%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1], 더 이상 취업의 문제는 4학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활 전반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2%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3년 8.0%, 2014년 2월에는 1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실업률의 증가와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졸업자 취업률(78.1%)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취업률(83.8%)에 미치지 못하며, 가까운 일본(84.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2]. 장기화된 높은 청년 실업률은 경제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야기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속박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각 대학들이 엄정한 성적관리를 위해 상대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낮은 성적을 보완하기 위한 재수강을 금지시키기도 하는 등 점차 좋은 성적을 취득하는 일이 어려워져, 학업 수행에서 느끼는 속박감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각된 속박감이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3]. 사람은 부정적인 경험을 마주했을 때 이를 해결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만일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여 통제력을 넘어서게 되면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학습된 무력감과는 다르게, 지각된 속박감은 부정적 경험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동기 수준은 높으면서, 무력감을 경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4][5].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중에 겪는 불확실한 취업 전망과 학업의 어려움 등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보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속박감을 지각하게 되며, 대학생활에서 지각된 속박감은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

급한 조치가 필요하다[6].

대학생들이 지각한 속박감과 관련하여 환경적 변인들을 고려해 보면,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이 대부분 학교 및 가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각된 속박감은 학교 및 가족관계의 질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중도탈락이나 취업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7][8], 특히 전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이나, 교우관계, 학교의 진로지도에 대한 부족감이 높아질 경우 대학생들이 느끼는 속박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대학생실태백서에서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 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을 기업들의 학력 혹은 지역에 대한 차별(21.8%)이라고 응답하였고, 청년 실업의 주된 이유로 스펙이나 학력 위주 기업이 고용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나[1], 대학생들이 대학만족도가 낮을 때 취업 실패에 대한 불안이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속박감의 지각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질과 대인관계, 취업의 준비 등 다양한 면이 모두 고려되는 대학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대학도 인식하여 대부분의 대학이 매년 다양한 면을 고려한 교육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수행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도 교육만족도 조사 여부와 결과의 정책적 반영 여부에 대해 교육영역에서 점검하고 있다. 대학 자체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일과 더불어 재학생들이 대학의 브랜드를 높이 평가하고 만족하는 일은 대학생들의 자존감에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대학만족도의 향상은 현재의 속박감을 벗어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만족도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관계의 질과 관련해서는 가족응집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족응집력이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심리적 친밀감으로 가족응집력이 높은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9]. 선행연구들에서 가족응집력은 청소년들의 외로움이나 불안, 정신병리 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0][11], 대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삶과 관련

하여 지각하는 속박감이 가족응집력이 강력한 지지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대학생들의 속박감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학과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해서 모두가 속박감을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러한 환경적 변인을 조절할 심리적 기제로 회복탄력성과 희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회복탄력성과 희망은 청소년들의 학습스트레스[12], 심리적 안녕감[12][13], 취업스트레스[14], 가족관계[15][16] 등과 관련하여 중재변수로 연구되어 왔다.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으로[17],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경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18]. 또한 희망은 '어떤 일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거나 결과에 대해 밝은 전망을 지니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의미한다[19].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닥친 역경에 대해 이겨내는 힘인 회복탄력성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인 희망은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속박감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복탄력성은 개인 내·외적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역량으로, 정서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낙관성,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과 같은 개인 내적 능력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같은 개인 외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20].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공감능력이나 정서조절 능력과 같은 영역들은 긍정적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주며, 사회부적응의 감소나 대학생활 적응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어 대학생활에서 지각하는 속박감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4][15][21]. 또한 대학생들이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이 일상생활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매개변수로 나타났고[15], 청소년들의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어[22] 회복탄력성은 가족관계와도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대학생들의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의 부족에서 지각될 수 있는 속박감을 극

복하는데 있어서 회복탄력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을 시사한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긍정의 심리학은 병리적이고 문제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긍정적 자원의 활용과 발달을 위한 방향으로의 연구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희망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도전적이며, 성공지향적으로 생각하는 등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와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된다[23]. Snyder 등[24][25]은 희망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는 능력인 경로사고(pathway thought)와 목표 달성을 위해 경로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주도사고(agency thought)로 보았다. 전국대학생실태조사[1]에 따르면, 중소기업에라도 취업하겠다는 대학생들의 비율이 70.4%에 이르고 있으나,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할 의향은 29.6%에 불과해, 아직은 청년들의 기대수준이 현실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은 생산직보다 나은 수준의 직업과 업무환경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최근 취업률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에게 더욱 더 속박감을 지각하도록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미래의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역량인 희망은 속박감을 조절하고, 주도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 긍정적 정서를 형성할 수 있다[23]. 희망은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도, 그리고 학습스트레스 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대학만족도에 희망의 조절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12][26]. 또한 희망은 지각된 속박감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저소득층과 암환자 가족의 긍정적 정서 및 우울, 가족지지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계에서 희망의 중재가 기대된다[27][28].

이희경[13]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과 공감변수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한 후 또래관계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높은 희망과 높은 공감 점수를 동시에 가진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또래와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사회적 지지도 높았으며, 정서와 행동통제력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희망과 공감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회복탄력성이 대인관계의 질과 사회적 지지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속박감의 지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서적 안정과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강명희와 이수연[12]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희망과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박은혁과 이웅택[14]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미취업에 대한 불안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장성연[16]은 대학생들의 가족 간 의사소통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대학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대학만족도와 가족관계가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희망과 회복탄력성의 유의한 중재효과를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들이 대학만족도와 가족관계,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통합된 연구가 없고 대학생들의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속박감을 조절하기 위한 심리적 변인으로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인 회복탄력성과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사고를 수행할 수 있는 희망은 대학생들의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속박감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조절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학만족도, 가족응집력과 지각된 속박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은 지각된 속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대학생의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희망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2년 11월에 서울의 한 대학에서 16개학과에 각 40부씩 총 6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61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를 위해 각 학과의 조교와 학년 대표를 통해 학년별로 분할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22.6세(SD=2.2)였으며, 19세에서 30세까지 분포하였고, 남자가 277명(45.4%), 여자가 333명(54.6%)이었다. 계열별 분포는 인문사회계열 196명(32.1%), 자연계열 303명(49.6%), 예체능계열 111명(18.3%)이었고, 1학년 154명(25.2%), 2학년 151명(24.8%), 3학년 145명(23.8%), 4학년 160명(26.2%)이었다. 성적은 평점 3.0 미만의 하위권이 72명(11.8%), 중위권이 192명(31.5%), 3.5 이상의 상위권이 346명(56.7%)이었다. 경제 수준별로는 하위권이 144명(23.6%), 중위권 269명(44.1%), 상위권 197명(32.3%)이었다.

### 2. 연구 도구

#### 2.1 대학만족도

대학만족도는 조사 대학에서 매년 수행하는 교육만족도 설문지를 활용하였다[29]. 교육만족도 설문지는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은 전공과 수업을 포함한 교육영역, 대인관계와 학과의 전망 등이 포함된 학교생활영역, 학생지원영역, 제도영역, 진로 및 취업지도영역, 자치회영역, 봉사영역, 이미지영역, 교육지원시설영역, 환경영역의 10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교육만족도 문항은 전공과 수업 등에 대한 만족도 외에도 교우관계, 교수와의 관계 및 대학이미지 등 학교와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도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대학만족도를 측정하기에 적절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된 후 100점을 최대값으로 변환하여 채점하였다. 총점은 전체 75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므로 0점에서 100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6이었다.

## 2.2 가족응집력

가족응집력은 최태산과 홍경자[30]가 가족의 심리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족응집력 척도는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우리 가족은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 등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일부 문항을 역채점 한 후 총합척도를 산출하였다. 총합척도의 범위는 5~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 2.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주소영과 이양희[31]가 개발한 청소년용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문제해결 능력, 부정적 감정의 인내, 학업적 유능감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총 27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된 후 총합척도를 산출하였다. 총합척도의 범위는 27~1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4였다.

## 2.4 희망

희망은 Snyder 등[24]이 개발한 도구를 한국에 맞게 타당화한 최윤희, 이희경과 이동귀[25]의 한국판 희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희망 척도의 하위요인은 1개로 나타났으며,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된 후 총합척도를 산출하였고, 총합척도의 범위는 8~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6이었다.

## 2.5 지각된 속박감

지각된 속박감은 Gilbert와 Allenn[5]이 개발한 속박감 척도를 이종선과 조현주[32]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합척도의 범위는 16~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속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2였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IBM사의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주요 연구 변수들의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 변수의 차이는 분산분석(ANOVA) 후 Scheffé의 사후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조절효과는 Baron과 Kenny[33]가 제안한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들의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 회복탄력성, 희망 및 지각된 속박감 간의 상관계수와 각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 회복탄력성 및 희망 간에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지각된 속박감과는 모두 부적으로 약한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행렬 (N=610)

변수	(1)	(2)	(3)	(4)	(5)
(1)대학만족도					
(2)가족응집력	.28***				
(3)회복탄력성	.42***	.49***			
(4)희망	.25***	.29***	.41***		
(5)지각된 속박감	-.17***	-.19***	-.34***	-.08*	
M	53.53	17.68	96.84	19.75	41.03
(SD)	(12.17)	(3.84)	(16.06)	(3.87)	(11.66)

\*p<.05, \*\*\*p<.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 변수들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 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2, 남자가 여자보다 대학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고(F=15.736, p<.001), 1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하게 대학만족도가 높았다(F=3.618, p<.05). 성적과 경제수준은 상에서 하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된 후 집단을 3개로 재범주화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성적 수준별로 분석해 보면, 성적이 상위권인 집단이 하위권보다 유의하게 대학만족도가 높았으며(F=4.468, p<.05), 가족응집력(F=16.853, p<.001), 회복탄력성(F=21.803, p<.001), 희망(F=18.631, p<.001)에서는 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속박감은 상위권이 중·하위권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10.200, p<.001).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위권이 중위권보다 대학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고(F=6.854, p<.01),

가족응집력은 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F=25.000, p<.001), 회복탄력성은 상위권이 중·하위권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7.879, p<.001). 한편 희망과 지각된 속박감에서는 경제 수준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대학만족도, 가족응집력과 지각된 속박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조절효과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3).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 변수들의 상호작용항은 각 연구 변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중심화(centering)한 후 곱하여 구성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I에서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을 투입하였고, 두 번째 연구문제인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만족도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과 가족응집력과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을 모형 III에서 투입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문제는 위계성이 없어 동시에 검증되어야 하므로 세 번째 연구문제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 변수의 차이

(N=610)

변수	대학만족도		가족응집력		회복탄력성		희망		지각된 속박감	
	M(SD)	F(Scheffé)	M(SD)	F(Scheffé)	M(SD)	F(Scheffé)	M(SD)	F(Scheffé)	M(SD)	F(Scheffé)
성별										
남자	55.65(12.32)	15.736***	17.70(4.07)	.010	97.56(18.26)	1.022	19.99(3.91)	1.924	40.83(12.69)	.151
여자	51.77(11.77)		17.67(3.64)		96.24(13.97)		19.55(3.84)		41.20(10.75)	
학년										
1학년 <sup>a</sup>	55.85(11.61)	3.618*	18.14(3.66)	1.299	97.48(14.69)	.532	19.90(3.75)	.300	41.38(11.52)	1.970
2학년 <sup>b</sup>	52.54(12.33)	(a)c	17.77(3.75)		97.82(15.47)		19.89(4.02)		41.25(11.85)	
3학년 <sup>c</sup>	51.55(12.36)		17.43(3.69)		96.19(14.88)		19.66(3.90)		42.39(11.34)	
4학년 <sup>d</sup>	54.04(12.05)		17.39(4.18)		95.89(18.74)		19.56(3.85)		39.25(11.80)	
성적										
하위권 <sup>a</sup>	49.70(12.28)	4.468*	15.79(4.12)	16.853***	87.97(18.19)	21.803***	17.53(3.89)	18.631***	44.29(10.69)	10.200***
중위권 <sup>b</sup>	53.43(11.50)	(a)c	17.16(3.49)	(a)(b)(c)	94.32(14.22)	(a)(b)(c)	19.40(3.63)	(a)(b)(c)	43.06(10.51)	(a,b)(c)
상위권 <sup>c</sup>	54.38(12.38)		18.37(3.79)		100.09(15.64)		20.41(3.82)		39.22(12.15)	
경제 수준										
하위권 <sup>a</sup>	54.10(10.91)	6.854**	16.22(4.21)	25.000***	93.82(18.24)	7.879***	19.74(4.26)	1.326	39.54(11.28)	1.758
중위권 <sup>b</sup>	51.61(11.59)	(b)(c)	17.47(3.31)	(a)(b)(c)	95.90(13.91)	(a,b)(c)	19.51(3.43)		41.18(11.13)	
상위권 <sup>c</sup>	55.73(13.39)		19.04(3.78)		100.35(16.54)		20.10(4.14)		41.91(12.57)	

\*p<.05, \*\*p<.01, \*\*\*p<.001

표 3. 대학만족도, 가족응집력과 지각된 속박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조절효과 (N=610)

독립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VIF
	b	β	b	β	b	β	
성별	-.53	-.02	-.42	-.02	-.73	-.03	1.14
나이	-.42	-.08	-.39	-.07	-.34	-.06	1.10
성적	-1.62	-.13**	-1.28	-.11**	-1.18	-.10*	1.13
경제 수준	1.99	.16***	2.10	.16***	2.22	.17***	1.13
대학만족도(A)	-.12	-.13**	-.05	-.05	-.03	-.03	1.40
가족응집력(B)	-.52	-.17***	-.23	-.07	-.22	-.07	1.54
회복탄력성(C)			-.24	-.33***	-.24	-.33***	1.66
희망(D)			-.32	-.11*	-.25	-.08	1.37
(A)×(C)					.01	-.08	1.46
(B)×(C)					-.02	-.12**	1.29
(A)×(D)					.02	.09*	1.34
(B)×(D)					-.01	-.02	1.28
R <sup>2</sup> (F)	.095		.161		.185		
	(10.552***)		(14.442***)		(11.266***)		
ΔR <sup>2</sup> (F)			.066		.023		
			(23.723***)		(4.282**)		

\*p<.05, \*\*p<.01, \*\*\*p<.001

인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희망의 조절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만족도와 희망의 상호작용항과 가족응집력과 희망의 상호작용항도 모형 III에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모형 I에서 통제된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하였고, 학년과 나이는 다중공선성이 예상되므로 나이만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 후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모형 I), 대학만족도(β=-.13, p<.01)와 가족응집력(β=-.17, p<.001)이 모두 속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량은 9.5%였다(R<sup>2</sup>=.095, F=10.552, p<.001). 2단계에서 조절변수를 투입한 결과 지각된 속박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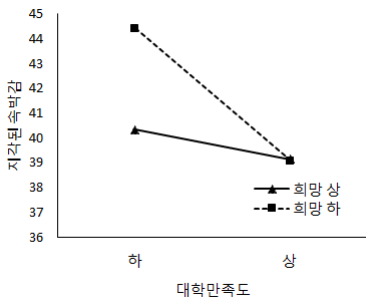


그림 1. 대학만족도와 지각된 속박감 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

회복탄력성(β=-.33, p<.0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β=-.11, p<.05)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량은 6.6% 유의하게 증가하여(ΔR<sup>2</sup>=.066, F=23.723, p<.001) 16.1%가 되었다(R<sup>2</sup>=.161, F=14.442, p<.001).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가족응집력과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β=-.12, p<.01), 대학만족도와 희망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였으며(β=.09, p<.05), 모형의 설명량은 2.3% 유의하게 증가하여(ΔR<sup>2</sup>=.023, F=4.282, p<.01), 최종 모형의 총 설명량은 18.5%가 되었다(R<sup>2</sup>=.185, F=11.266, p<.001). 최종 모형의 Durbin-Watson 값은 2.03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하였고,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확인한 결과 모두 1.10~1.6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첫 번째 연구문제는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모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지되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가족응집력과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만 유의하게 나타나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대학만족도와 희망의 상호작용항만 유의하게 나타나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대학만족도와 지각된 속박감 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도식으로 표현한 결과(그림 1), 희망이 높아질수록 대학만족도가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약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희망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지각된 속박감이 낮으며, 희망이 낮을 경우 대학만족도가 높은 것이 지각된 속박감을 낮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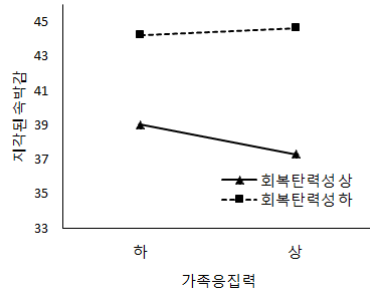


그림 2. 가족응집력과 지각된 속박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있다. 그러나 대학만족도가 높은 경우 희망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족응집력과 지각된 속박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도식으로 살펴보면 [그림 2],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전반적으로 지각된 속박감이 낮았으며, 특히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만족도가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희망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희망이 증가할수록 대학만족도가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희망은 대학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의 지각된 속박감을 낮추는데 더 크게 기여하였다. 비록 대학만족도가 낮더라도 희망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는 경로사고와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지각하는 주도사고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24]. 이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암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희망의 유의한 영향을 이미 확인한 바 있으며[27][28],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습전략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도 희망의 중재역할이 확인된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26]. 학생들의 대학만족도가 낮은 경우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소중한 인재를 대학이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대학이 지방에 소재한다거나, 학교의 정원 및 규모와 같은 일부 영역들은 대학이 물리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만족도의 영역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대학이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희망을 제안한다. 희망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으며,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

택하고, 그 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모든 대학생들에게 공통적인 진로지도나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아닌 각 대학의 여건과 그 학과의 전망 등을 연계하여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확정하고 진로 목표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자존감 향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대학만족도를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 대학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 개별 전공에 대한 전망을 탐색하고, 전공과 학생의 여건을 고려한 희망적 사고의 증가는 대학생들의 지각된 속박감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즉,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가족응집력이 지각된 속박감을 감소시키는 것을 더욱 강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절효과에 대한 사후 분석을 위해 작성한 도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고, 회복탄력성이 직접적으로 지각된 속박감을 감소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가 추가된 최종 회귀모형에서도 여전히 유의하면서 가장 큰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을 보이고 있어( $\beta = -.33$ ), 지각된 속박감의 감소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복탄력성은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과도 상관이 있고, 가족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도 관계가 있어 대학생들의 지각된 속박감을 조절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의 증진이 반드시 필요하다[34-36]. 여러 선행 연구자들은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주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대학생을 위한 회복탄력성 증진프로그램의 요소로는 개인 내적으로 정서조절력과 긍정적 사고의 전환 능력, 자기효능감 등이 필요하고, 개인 외적으로는 대인관계를 위한 공감능력 과 의사소통 능력 및 감사성향 등이 요구된다. 대학생



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인턴십 등 각종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또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성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자칫 잦은 실패의 경험이 개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회복탄력성의 증진은 다양한 도전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학생들이 선행하여 갖추어야 할 요소임을 시사한다.

셋째,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은 모두 대학생들의 지각된 속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지각된 속박감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속박감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6]. 대학생들은 학업이나 취업에 대한 불안 등 대학생활 중 겪는 문제들에 대해 대처하고자 하지만, 기업들이 학력에 따라 차별을 한다는 인식과 좋은 성적 취득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속박감을 경험하게 된다[1]. 그러나 개인 내적 속성인 회복탄력성과 희망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지각된 속박감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을 함께 투입했을 때,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영향으로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대학생들의 지각된 속박감을 낮추기 위해 개인 내적 변수인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중요성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대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높고, 회복탄력성과 희망이 높으며, 지각된 속박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과 희망은 학업성취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각된 속박감도 성적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한 속박감과 성적의 관계는 인과관계를 규정하기 어려우나, 속박감의 정의가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는 있지만 통제력 상실로 인한 무력감을 경험하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대보다 낮은 성적으로 인해 속박감을 더욱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나 회복탄력성과 희망은 낮은 성적에 대한 중재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조한익[26]은 희망이 인지전략과 메타전략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학습전략을 통하여 학업

성취도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 희망의 경로사고가 학업성취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기결정성 동기와의 관련되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회복탄력성의 역할이 중요하므로[37], 궁극적으로 대학생들의 지각된 속박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회복탄력성과 희망을 통한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회복탄력성의 원인분석 능력과 자기효능감은 시험에 한두 번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역량이며, 희망이 더해지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더욱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고 수행할 수 있어 학업을 위해 반드시 강화해야 할 요인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의 1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조사 대학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으므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둘째, 가족응집력과 지각된 속박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의 크기가 작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반복 측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절효과는 주효과를 통제하고 모형에 삽입되었기에 효과의 크기가 낮을 수 있으나, 사후 도식을 고려해 볼 때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전반적인 연구의 상관계수와 설명량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도구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중요한 변수의 생략일 수도 있으므로, 개인 내적 변인인 회복탄력성 뿐만 아니라 학업탄력성을 비롯하여 가족탄력성 등 다양한 탄력성 연구를 병합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속박감에 대학만족도와 가족응집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개인 내적 변인인 회복탄력성과 희망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여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여의도 연구원, 2013년 전국 대학생실태 백서, 서울: 여의도연구원, 2013.
- [2] 통계청,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에서 2014년 6월 10일 인출, 2014.
- [3] G. W. Brown, A. Bifulco, and T. O. Harris, "Life events, vulnerability and onset of depression: Some refinement,"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50, pp.30-42, 1987.
- [4] 이종선, 조현주, "한국판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제1호, pp.239-259, 2012.
- [5] P. Gilbert and S. Allan,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of an evolutionary view," *Psychological Medicine*, Vol.28, pp.585-598, 1998.
- [6] 천숙희,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속박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8권, 제3호, pp.223-235, 2012.
- [7] 박미정, 함영림, 오두남,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정도 및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327-337, 2012.
- [8] 이재도, 권용현, "보건계대학생의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논문집*, 제13권, pp.117-129, 2012.
- [9] 신선화, 정구철, "자기수용과 가족용서가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p.277-288, 2014.
- [10] L. Juang and A. Alvarez, "Discrimination and Adjustment Among Chinese American Adolescents: Family Conflict and Family Cohesion as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100, No.12, pp.2403-2409, 2010.
- [11] L. Ierago, C. Malsol, T. Singeo, Y. Kishigawa, F. Blailes, L. Ord, P. Florsheim, L. Phillips, S. Kuartei, J. Tiobech, B. Watson, and H. Ngiralmu, "Adoption, family relations and psychotic symptoms among Palauan adolescents who are genetically at risk for developing schizophrenia," *Social Psychiatry Epidemiology*, Vol.45, pp.1105-1114, 2010.
- [12] 강명희, 이수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6호, pp.265-293, 2013.
- [13] 이희경, "중학생의 희망과 공감 하위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3호, pp.751-766, 2007.
- [14] 박은혁, 이용택,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71호, pp.5-30, 2013.
- [15] 김민경,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및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0권, 제1호, pp.1-13, 2012.
- [16] 장성연, "일부 치위생과 대학생에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제14권, 제1호, pp.74-80, 2014.
- [17] 김주환, *회복탄력성*,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1.
- [18] 한수연, 정구철, "남성 수행자와 일반인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8권, 제4호, pp.763-781, 2013.
- [19] 김택호, 김재환,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3호, pp.465-490, 2004.
- [20] K. Reivich and A. Shatté,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Broadway Books, 2003.
- [21] 김종운, 최미숙,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2호, pp.45-68, 2013.
- [22] 정지영, 임정하,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23권, 제1호, pp.37-51, 2011.
- [23] K. R. Vacek, L. D. Coyle, and E. M. Vera,

“Stress, Self-Esteem, Hope, Optimism, and Well-Being in Urban, Ethnic Minority Adolesc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38, No.2, pp.99-111, 2010.

[24] C. R. Snyder, C. Harris, J. R. Anderson, S. A. Holleran, and L. M. Irving,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s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0, pp.570-585, 1991.

[25] 최윤희, 이희경, 이동귀, “Snyder의 희망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2권, 제2호, pp.1-16, 2008.

[26] 조한익,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목표지향성, 희망 및 학습전략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9권, 제3호, pp.465-483, 2012.

[27] 박선영, “저소득층의 긍정적 정서 및 우울감과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매개 및 조절 역할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40권, pp.189-214, 2013.

[28] 어은영, “암환자의 가족지지와 희망에 관한 연구”, *임상간호연구*, 제3권, 제2호, pp.91-117, 1998.

[29] 삼육대학교 기획처, *2012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30] 최태산, 홍경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심리적 변인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1권, 제2호, pp.291-322, 1997.

[31] 주소영, 이양희, “청소년용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4호, pp.103-139, 2011.

[32] 이종선, 조현주, “한국판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제1호, pp.239-259, 2012.

[33] R. M. Baron and D. M.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34] 김덕진, 이정섭,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 pp.244-254, 2014.

[35] 김민경, “대학생의 가족스트레스,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제29권, pp.34-57, 2012.

[36] 이옥형,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호, pp.29-57, 2012.

[37] 조한익, 이나영,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6호, pp.1-20, 2010.

#### 저 자 소 개

신 선 화(Sun-Hwa Shin)

정회원



- 1997년 2월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2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과정
- 201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보건

정 구 철(Goo-Churl Jeo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 과(문학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건강심리학, 학교심리학